

‘감독 선임’ 靑 또다른 고위급 개입 조사

■ 검찰 ‘신정아 의혹’ 교육부 등 전방위 수사

卞씨 동국대 파격 지원 배경·미술품 구입 외압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에 변 전 실장의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돼 있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시절 동국대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배경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넘겨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데 이어, 변 전 실장의 주거지와 임시 주거지, 주요 참고인들의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13일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위원들을 소환, 신씨를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정했던

과정에 변 전 실장 외에 추가로 2명 이상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변 전 실장 직무실 PC 등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국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남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 신씨가 2005

년 동국대에 임용된 전후 정부의 동국대 예산지원 경위를 캐물은 데 이어 이날도 동국대 관계자를 불러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국대는 2004년 12억4천900만원, 2005년 35억600만원, 2006년 100억3000만원, 올해 61억5천8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신씨가 동국대 교수로 채용된 것은 2005년 9월이다.

이와 함께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에 기획예산처가 구입한 미술품은 모두 신씨와 관련된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작품은 설치조각가 윤영석씨의 ‘움직이는 고요’(2004년작)와 사진작가 황규태(69)씨의 사진 ‘큰일났다 봄이었다’(2005년작) 등 2점으로, 각각 1천200만원, 800만원에 구입됐다.

검찰은 또 기획예산처를 포함해 다수 정부 부처로부터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요청해 검토하고 이날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 부처가 신씨로부터 그림을 구입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시 설

여수 찾는 BIE 대표단에 ‘감동’ 안겨주자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장·차관과 BIE 대표 등 200여 명이 15일 2012세계박람회 후보도시 여수를 방문한다. 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표 74일 앞두고 여수를 찾는 대표단은 박람회 준비상황과 시민들의 유치 열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시민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대표단인 이번 방문이 개최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단이 ‘여수 브라보!’를 연발할 수 있는 감동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쟁국인 모로코, 폴란드와 확실히 차별화된 분위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는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한덕수 총리,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이 14일까지 열린 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감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상당수 부동층 국가들이 여수를 지지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반적 판세에서 경쟁국보다 조금 앞서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빈센데 곤살레스 노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가 방문자 및 참가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대표단의 여수 방문은 국제심포지엄의 마지막 일정이다. 박람회 개최지 투표표는 오는 11월27일 실시된다. 여수시와 시민들이 치밀한 준비와 뜨거운 유치 열기로 대표단에 대한 감동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내년 세 부담 사상 최대 국민이 봉인가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증가한 43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수준이다.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도 210만원으로 12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실상의 조세인 각종 기금과 부담금 등 준조세를 합치면 국민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다. 가뜰이나 불경기에 시달리는 중산·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제세 수입은 165조3천354억원으로 올해 국제세 수입 전망치보다 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올해 22.1%에서 내년에는 21.8%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올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 상대적으로

로 내년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8.8%나 늘어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2만원 가량 증가한다. 소득이 한푼도 어긋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이 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군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매년 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도한 조세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가처분소득을 확대시켜 중산·서민층의 허리를 펴줘야 할 것이다.

‘신정아의 남자’ 또 있나?

알려진 애인 말고도 문화예술계 적어도 5명

‘신정아-변양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씨의 애인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신씨와 애인 사이로 알려진 인물들은 유명 설치미술가인 A씨를 비롯해 문화예술계에서만 적어도 5명.

특히 A씨는 신씨와 최근까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그 기간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애편지를 주

고 받은 시기와 맞물린다. 예일대 석사 출신 A씨는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최근까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A씨와 신씨는 그러나 예일대 허위 학력 파문이 일자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30대 조각가 B씨, 30대 소설가 C씨 등. 나이가 신씨의 누드 사진이 발견된 곳이 원로 화가 D씨의 집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은 신씨의 남자관계를 면밀히 추적 중이다. 이 같은 정황들이 사실성을 뒷받침할 경우 신씨가 변 전 실장과 애정을 전제로 연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님을 반증하기 때문. 그만큼 신씨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대통령 생일행사 취소

노무현 대통령이 일요일인 오는 16일(음력 8월9일) 61번째이자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생일을 맞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변양균 파문’, 정운재 전 의전비서관 문제 등 최근에 불거진 측근 의혹으로 인해 청와대 참모 및 국무위원들과 생일 축하자리를 갖기로 했던 애초 계획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청와대에서 갖는 마지막 생일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장관들과 식사를 하는 계획이 검토됐지만,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후 네 차례 생일을 맞을 때마다 주로 수석·보좌관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생일 축하 자리를 가졌다.

당초 14일 저녁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갖고, 토요일인 15일에는 비서관급 이상 전부를 초청해 만찬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日 해상자위대 장교 현충원 참배 14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그간 장성급이나 정치인 방한시 개인 참배는 있었으나 장교들의 현충원 참배는 처음이라고 현충원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김한길계 정동영 후보 지지

지난 2월 열린우리당에서 1차 집단탈당을 주도했던 ‘통합신당추진모임’ 소속 의원 14명이 14일 통합한민주당 분당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한길 조배숙 최용규 염동연 등 모임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 후보의 경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장경수 의원이 밝혔다.

예비경선을 1, 2위로 통과한 손학규, 정동영 후보가 초반의 수위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첫 본경선을 하루 앞두고 지역구 의원 10여명이 집단적으로 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초반 경선판도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명숙 사퇴 이해찬 후보로 단일화

유시민과 2차 단일화 시도...경선정국 태풍되나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해찬, 한명숙 후보가 이해찬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경선은 비노 주자인 손학규, 정동영 후보와 친노 주자인 이해찬, 유시민 후보 간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형성됐다.

대통합 민주신당 한명숙 예비후보는 14일 강원도 호반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해 선언하고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12일과 13일 3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3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이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후보는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일화는 ‘친노 동맹’이 가시화됐다. 접에서 경선 구도에서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초반 판세의 분수령이 될 경선 초반 4연전에서 친노 표심이 이해찬 후보 쪽으로 쏠릴 현상을 보일 경우 단일화 효과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친노 주자인 유시민 후보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이해찬, 유시민 후보 간의 2단계 단일화를 급격히 앞당길 소지가 있다. 2차 단일화도 이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 후보가 경선 초반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거나 이 후보와의 표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단일화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손학규, 정동영 후보 측은 이번 단일화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한권의 책이 인생을 좌우한다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정부는 기자실 통제할 문제와 관련해 통합브리핑센터 설치에 강행하되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내용을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이 같은 방향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수정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총리훈령 수정안은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대신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를 허용하고, 면담 장소는 기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들의 등록증제도는 없애고, 출입증의 경우

원하는 기자에 한해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기관의장이 발급하고, 엠바고는 각 부처 책임하에 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經協 “제주 해저터널 지지”

전남지역경제인협회는 14일 전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키로 한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동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남지역경제인협회는 이날 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지지 선언문을 통해 “전남-제주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신태평양시대를 여는 국가발전의 대역사일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조직 개편이나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종태기자 jtee@kwangju.co.kr

내년 1인당 세 부담 43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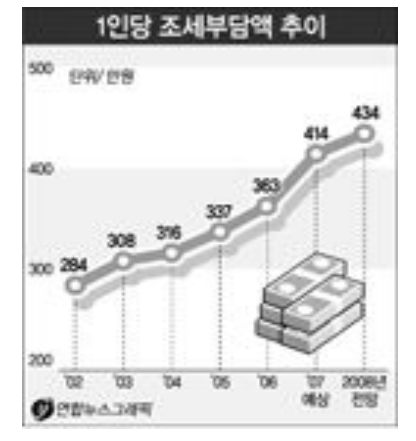
올해보다 20만원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제+지방세) 부담액이 434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2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세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작년에 했던 전망치 20.6%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것이다. 조세부담률 산정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GDP 전망치 968조9천65억원에서 조세부담률로 추정된 국제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 수입은 211조2천216억원으로, 이를 내년 추계인구 4



천860만6천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434만원에 달해 올해의 414만원보다 20만원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상속·증여세가 7천504억원으로 23.4%, 법인세가 36조566억원으로 6.3% 증가하고 소득세는 37조8천125억원으로 0.8%, 부가가치세는 43조9천720억원으로 9.7%가 각각 늘어나며 교통세는 12조355억원으로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표 적용률 인상 등에 따라 34.3% 증가한 3조8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신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경제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